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며칠 전 정년 퇴임하는 교장 선생님이 퇴임식장서 강남 스타일 막춤을 추었다고 나에게 자랑스럽게 전했다.

사이의 유튜브 조회수가 1억명이 넘었다니, 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 했더니 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로 번지고 있다. 과연 한민족의 '풍류기'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남'이란 문화코드는 생소했겠지만 언어장벽을 넘어선 만국공통코드인 '재미'가 마음을 열게 했다. 여기에 싸이의 말춤동작엔 한국만의 토속적인 맛도 성공요인중 하나일 것이다.

'강남 스타일'을 보고 들으며 언뜻 '운주사의 미륵불'을 상기했다. 강남 스타일에 생동감있게 웬 미륵불인가? 말로 쉽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싸이의 망가

'강남 스타일'서 운주사 미륵불 본다

지는 모습에서 운주사의 미륵불을 지을 수가 없다.

나는 청소년 시절에 유랑과 표류로 보낸 시기가 있었다. 당시 한 여름철 '아이스케기' 장사를 하며 30여 '가출 청소년'들이 주인집 한 모퉁이에 마련한 공동 숙소에서 함께 지냈다.

당시 가출 청소년은 결코 문제아들이 아니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손가락을 털어 주기 위해서, 또는 고학으로 공부 하려고, 돈 벌어 집안 돕기 위해서 아플 수 없이 집을 나온 상황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과 달리 가출을 통해 큰 인물이 된 '가출 임신'의 인물은 우리 주변에 참 많았다.

또한 이들이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을 만들기도 했다. 그때 그 공동 숙소에서 부산서 올라온 어떤 청소년이 춤추는 것을 즐겼다. 오래 된 얘기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춤이 지금의 싸이 막춤과 비슷했다.

그 춤에 흥겨워 함께 춤을 매일 저녁마다 같이 했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오락이었다. 강남 스타일-운주사 미륵불-가출 소년의 막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고 물으면 막춤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강남 스타일에서 '아나키'한 맛과 멋을 느낀다. 장식된 규범을 부수고-그 부수는 파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통해 한다-반전과 해학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아나키스트의 체취를 느낀다. 운주사 입구에서부터 늘어난 미륵불은 자유와 해

사이 유튜브 조회 1억명 넘어 '재미'가 세계인 마음 열었다  
반전·해학 제2 비틀즈 기대 자유 갈구한 미륵불도 유사

방을 갈구한 애절한 민초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진지함과 무거움을 반전과 해학 그리고 막춤으로 풀어내는 것은 아나키가 생각한다.

가출 소년들이 추는 그 막춤이 바로 미륵의 춤이고, 미륵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바로 해학이다.

강남은 결코 미륵의 동네가 아니고,

가출 청소년의 막춤 동네도 아니다. 그런데 강남은 미륵 동네가 되어 막춤을 신나게 춘다.

강남 스타일이 왜 세계적으로 관심 대상이 될까? 그것은 바로 운주사 미륵불의 원형과 이미지에 세계인이 공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만큼 이 지구별은 미륵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강남 스타일에서 미륵의 체취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이에서 '비틀즈'를 떠올린다. 영국 조그마한 도시 리버풀서 출발한 비틀즈가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은 비틀즈 노래에서 자유와 해방의 절규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비틀즈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강남 스타일을 운주사 미륵불과 비교한 것 자체가 오히려 강남 스타일인지도 모른다.

그 만큼 현학적인 흥내 내는 글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강남을 비틀즈 내 글도 비틀고 싶은 것이다. 싸이 노래와 춤 속에서 미륵의 체취가 계속 나온다면 그는 필경 제2의 비틀즈가 될 것이다. 미륵은 인류의 제일 큰 공감기기 때문이다. 나무미륵사이불.

社說

동화사 훼손, 해당 교단도 사죄해야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개신교의 한 목사가 대구 동화사서 소변을 누고 탕화에 낙서를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불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동화사에 따르면 8월 20일 오후 5시 울산에 거주지를 둔 목사 성 모 씨(43)가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법화경>과 <선문절요> 등 불교경전을 훼손한 뒤 산신각 탕화에 낙서 했다고 한다.

그의 괴이한 행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조사전에 들어가 청수 그릇과 향로에 소변까지 똌다. 물론 성 목사의 황당한 행각은 사찰 CCTV에 촬영됐으며 동화사 측은 대구 동부경찰서에 신고해 성 씨는 10여 일 만에 검거됐다.

성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밝히며 "불교경전에 샅된 것이 적혀 있어 훼손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자신이 정작 진실한 목사였다면 자신의 종교처럼 다른 종교도 사랑할 줄 알아야 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적개심을 갖고 신성한 불단에 훼손 행위를 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이런 불교계의 마음을 읽었는지 성 씨는 9월 6일 비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됐다. 이번 문제는 성 목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기엔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다. 범행을 저지른 성 목사도 엄중처벌해야 되지만 개인적 단죄처분을 넘어 해당 교단에서도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구불교계에는 이번과 같은 훼손 사건을 연달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기독교계 '땡깡기'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났으니 말이다. 지난 2010년 동화사에서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사찰 경내에 들어와 땅 밟기를 벌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온라인 상에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훼손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기에 어떻게 보면 그리 놀랄 것도 없다. 하지만 정도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면 중단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절이 지역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불교와 사찰은 지역에 없다. 지역구는 없고 전국구만 있다."

포교원의 주최로 열린 정책연구회에서 밝힌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의 지적이다. 이는 윤 소장이 연구과정에 만난 서울시 공무원, 풀뿌리 시민사회운동가들의 말을 빌린 것이다.

사실 불교계가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포교 프로그램은 장학, 복지 사업 등이나 간간히 열리는 사찰 음악회 정도의 행사다. 위의 지적은 이런 사회적 프로그램이 빠르게 사찰을 알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정말 지역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세계는 지역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1992년 브라질 리우 회담 이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슬로건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자신의 중점 사업으로 도시마을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포교 방법론이 지역과 함께 어울리며 논의해야 한다는 윤 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도심 및 농촌지역 사찰의 존재방식을 재구성하고 지역에서 사찰의 역할에 근거한 포교 개념을 재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조계사와 마곡사 등을 중심으로 사찰이 지역 공동체 속으로 녹아들어가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계사는 종로 구청과 마을 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일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불교도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갈등해소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역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사찰이 스스로 성찰해 변화해 나가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이종만  
종은빛 풍경소리 기획실장

가을이다. 이 시기가 되면 전국 산사에는 감미롭고 흥겨운 음악들이 울려 퍼진다. 산사 음악회의 계절인 것이다.

산사음악회는 갑자기 생기기 않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관광과 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역 행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은 명산고찰을 찾게 됐고, 산사들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게 됐다. 그것이 산사음악회다. 템플스테이 이전부터 있던 불교 문화상품인 셈이다.

2000년대 산사음악회는 전국 산사에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났다. 제대로 된 목적과 기획 없이 양산된 산사음악회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찰의 단순 부대행사가 된 경우가 많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사음악회들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세간에서도 그렇지만, 좋은 공연과 나

산사음악회, 불교다운 기획력 필요

쁜 공연은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유명 연예인을 불러오더라도 그에 맞는 테마와 산사의 멋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산사음악회의 효시로 잘 알려진 청량사 산사음악회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기획에 들어간다. 메인 테마와 세부 공연 테마를 정하고 출연 연예인을 섭외한다.

올해 청량사 산사음악회의 테마는 '다 함께 하나되 목청껏 부르는 노래'다. 팽팽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울분을 산사에서 소리라도 지르며 풀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 음악회의 테마를 정했다. YB윤도현 밴드를 섭외한 이유도 이들 노래만큼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뛰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는 가수가 없기 때문이다.

청량사 산사음악회가 10여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런 탄탄한 기획력에 있다.

이 같이 잘 되는 산사음악회는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높인다. 한 해로 2-3년 전 필자가 지방 한 사찰의 산사음악회를 기획·공연한 적이 있다. 크고 화려한 음악회는 아니지만 건실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효과는 다음해 부처님오신날

에 드러났다. 이후에 만난 당해 사찰 주지 스님은 다음해 부처님오신날에 비빔밥이 평년보다 1천 그릇이상이 나갔다고 즐거움 비명을 질렀다.

이는 산사음악회가 단순한 부대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좋은 공연은 사람들을 이렇게 산사로 오게 만든다.

테마 갖추고 출연자 섭외 '산사의 멋' 살릴 수 있어야  
도심 사찰 문화법회로 찬불 가수 활용도 찾자

산사음악회는 불교 음악을 소개하는 장이기도 하다. 작지 않은 사람들이 불자 연예인도 아닌 단순 유명 가수가 산사음악회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불교 음악을 듣기 어렵다고도 한다. 하지만, 어느 산사음악회가 단순히 유명 연예인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사찰의 합창단이 나와 찬불가를 부르고, 영산재·법고 등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된다.

열린음악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트로트부터 가곡,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마지막은 당대 최고의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부른다. 산사음악회에 인원이 얼마나 동원됐고, 연예인이 누가 나왔는지 외황을 보는 것보다 얼마나 양질의 공연으로 채워졌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불자 연예인, 찬불 가수의 역할이 격정된다면 사찰의 일상법회에서 그들이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도심·대형사찰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법회'를 제안한다.

한두달에 한번 정도 음악과 법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법회에 찬불 가수들을 불러 신작 찬불가를 가르치게 하고 따라 부르며 신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좋은 빛 풍경소리'가 진행하는 붓다콘서트도 이런 문화법회의 일환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일취월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한국 불교음악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에 산사음악회의 계절이 다가오면 항상 가슴 한편이 아리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